광산업, 첨단·가전부품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추진

광주·전남, 기업 유치 비상 걸렸다

'서울 마린' 등 50개 기업 투자협상 차질 불가피

재정경제부가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는 '산집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와 전남도의 기업 유치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신·증설 허용업종에는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을 비롯해 첨단, 가전 등 부품 산업들이 포함돼 있어 첨단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대기업들이 항공기· 우주선 부품· 광섬유 등 25개 첨단업종 공장을 수도권에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산집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에만 25개 첨단 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한 반면, 국내 대기업에는 14개 첨단업종에 한해 증설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수위가 정책추진을 결정할 경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른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허용한데 이어 투자 지원책마저 뒤따를 경우 광주시와 기업이전 등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는 서울 마린(주), (주)코렐 등 첨단기업들과 공장건설을 추진키로 하는 등 국내 50개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투자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이 투자환경이 바뀜에 따라 투자여건이나 물류, 유통체계 등에서 광주보다 뛰어난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게다가 시가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 부지 조성을 추진중인 '평동공단 2, 3공구', '첨단국가산단', '진곡산단'의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명박 당선인, 22일 시·도지사 만난다

이달말께 광주 등 순회… 새 정부 지방정책 직접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2일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16개 시·도지사와 첫 상견례를 갖는다. 이 당선인은 또 이달 말께 광주와 부산, 대구 등을 순회하며 새 정부의 지방정책과 대통령 공약 이행방안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측는 최근 "오는 22일 서울에서 이 당선인이 시·도지사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당선인에게 건의할 주요 현안과 호남대운하를 비롯한 공약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또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달 말 인수위가 이 당선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을 순회하며 새 정부의 지방정책을 직접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 시기는 이달 말에서 설 연휴까지 약 1주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인수위는 또 오는 23일께 '광역경제권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정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방 정책과 공약이행 계획 수립 작업도 이달 중순 이후부터 인수위 차원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13 하계U대회 유치 본격 시동

광주시 17일 유치위 출범… 위원장·임원 선출

박삼구 금호회장 "적극 돕겠다"

광주시가 오는 17일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내외 유치활동에 본격 시동을 건다.

시는 17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김종량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KUSB) 위원장 등을 초청, 2013년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범국민 유치위원회는 전국의 정·관계와 경제, 체육계 인사 등을 망라해 20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유치위원장 영입을 위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지속적으로 접촉, "개인은 물론 그룹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유치위원장직과 후원회장직 가운데 하나를 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시장은 또 국제 스포츠계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이 달중 유치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는 해외 유치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또 오는 3월 15일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2013년 하계 U대회 개최지는 3월 중순~4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5월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광주를 비롯 러시아 콰잔, 캐나다 에드몬튼·퀘백,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 무르시아·비고 등 5개국 7개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김윤석 광주시 정무부시장은 "7개 도시가 경합하고 있지만 사실상 광주와 2년 전 한 표차이로 탈락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선 러시아 콰잔과의 대결"이라며 "개최지 결정에 지역민의 유치 열기와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삼성 특검' 105일 대장정 돌입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조준웅(67)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 수사팀이 10일 출범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리버텔 7~9층에 사무실을 마련, 이날 오전 현판식을 가졌다.

'삼성 특검'은 60일 동안 활동하며 추가로 1차 30일, 2차 15일 이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5일간 수사가 진행된다.

특검은 불법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경영권 불법 승계, 정·관계 · 법조계에 대한 로비 등 '3대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포괄적 뇌물제공 의혹과 '삼성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한달여 간 기초수사를 통해 4만2천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만들어 특검에 넘겼다.

또 전·현직 임원 200여명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 의심 계좌' 1천여개를 추적해 이 중 300~400여개는 차명계좌일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연합뉴스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조준웅 특별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삼성특검 집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日만평

- 김종두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

靑, 경찰청장에 어청수씨 내정 발표

과거사위 상임위원 김준곤씨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다음달 9일 임기가 끝나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후임에 어청수(사진·53)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이 공식 발표했다.

어 내정자는 경찰간부 후보생 출신으로 서울 은평경찰서장, 대통령 치안비서관, 경남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천 수석은 "어 내정자는 부산청장 당시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경비와 경호를 완벽히 수행했고, 서울청장 재직시에는 내근 부서를 슬림화하고 인력을 현장 근무부서에 배치하는 등 시민의 치안만족도 향상에 주력했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의 불법 선거사범을 최소화하고, 확고한 법질서 확립과 완벽한 치안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준곤(53)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 상임위원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제2순환도로 보전금 줄이기 실패

광주시, 운영사와 재협상서 보장기간·비율 합의 못해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에 대한 시의 적자보존액을 줄이기 위해 운영사와 재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도출했으나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제2순환도로 1구간(5.6㎞)과 3-1구간(3.4㎞)을 운영하는 광주순환도로 투자(주)· 광주순환(주)와 당초 계약한 민자도로 적자보존액을 낮추는 협상을 벌여 이들 운영사가 2010년까지 51억원에 달하는 도로를 확충하고 도로 시설물을 정비해주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재협상을 요구하며 '민자구간의 도로 관리·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천명한 방침은 일단 백지화했다.

그러나 시는 1년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밀려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적자보존액'을 낮춘다는 당초 협상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연간 200억 원에 가까운 보전금을 지급하면서도 정작 챙긴 것은 수십억 원에 불과한 데다 문제가 됐던 보장기간과 비율 등에 전혀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시가 제2순환도로 운영기업에 지급해야 할 수입 보전금은 2003년 계약한 제2순환도로 4구간(4.5㎞)의 수입 보전금 약 20억 원을 합해 연간 198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며, 남은 지급 기간은 1구간 21년, 3-1구간 27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사측이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시하는 데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민자도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수입 보장률 인하 요구는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단 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지급을 유보했던 2005년분 수입 보전금 172억 원을 올해 지급키로 했으며 2006년분 수입 보전금의 지급 여부와 방법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 ☎(062)220-0524
• FAX:227-9500

분할 양도양수 공고
2008년 1월 3일 개최된 (주)구리공사(분할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법 530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는 회사 분할 절차에 따라 당사의 건설부문(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광주달97-10-01호)에 관한 권리의무와 자산 일체를 분리하여 (주)신고려건설(분할신설회사)를 자산 분할의 방법으로 설립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분할에 따른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분할대상:건설부문(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광주달97-10-01호)의 권리 및 자산의 일체
2)분할예정일 : 2008년 2월 15일
3)분할(양도)회사 : 주식회사 구리공사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38-68번지
대표이사 김 현 철
4)분할(양수)회사 : 주식회사 신고려건설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38-68번지
대표이사 김 현 미
5)이의 및 주주제출기간 : 2008년 1월 11일~2008년 2월 10일
6)제출처 : 주식회사 구리공사 (전화:061-471-9204)
2008년 1월 11일
주식회사 구리공사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38-68번지
대표이사 김 현 철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08년 1월 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8년 2월 12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8년 1월 11일
주식회사 대세아이디에쓰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60
청산인 유 진 아

금당부동산
☎223-7400 핸 016-632-5659
(위치:충장로 5가 4거리 코너 2층)
사찰(절) 및 사찰부지
◉남구 월산동 문화방송국옆. 광주시내 전체를 조망하며, 무등산이 정면으로 보이고 주변은 APT 6천세대 이상을 재개발하는 최상의 요지.
대지501평 공시지가 5억5500만원 매도7억 조정가능
◉광산구 하남 월곡동 부근 산정동소재 3층집. 주변은 아파트 집단지와 상가지역이 형성되 도심 포교당이나 여스님 운영 사찰로 적합.
대지61평 건평 87평 담보1억4천 매도3억 조정가능
연락처
062)223-7400
016-632-5659

◈ 창립총회 공고 ◈
본 마륵치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 조합창립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8년 01월 26일(토) 오후 4시
2. 장 소 :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3. 참석자격 : 마륵치평구역 조합원
4. 안 건
① 제1호 안건 : 조합정관 승인의 건
② 제2호 안건 :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동의의 건
③ 제3호 안건 : 결산보고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④ 제4호 안건 : 선거관리규정 및 업무규정 의결 건
⑤ 제5호 안건 :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 건
⑥ 제6호 안건 :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
5. 총회 참석시 지참물
① 본인 참석할시 :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② 대리 참석할시 (대리자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성년인 형제자매)
㉠ 위임장 - 조합원 인감날인(조합원 인감증명서 첨부 : 용도 -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 조합원과 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③ 주민총회에 대리인의 참석도 불가할 경우에는 동봉된 서면결의서를 총회 전일(01월25일) 18시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토지등소유자도 총회 참석 시 결의권을 제외한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④ 공유자일 경우 전원 참석 가능하나 대표자 1인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⑤ 총회의 안건이 상정되면 참석이 불가하오니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⑥ 총회 당일 주차공간 협소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2008년 01월 11일
마륵치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56-14번지 ☎062)371-8822 FAX 062)371-8824

E-Supporter 어학원
http://www.e-supporter.co.kr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
타어학원에 비해 가격 최저! 효과 최고!
E-Supporter가 영어공부 하기 좋은 이유?
1 기숙사 통합 관리 시스템
2 개인별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
3 100%의 영어사용환경을 유지
4 세미스파르타식 어학원
연수비용 *만원

과정	2인실	1인실
2개월	150	160
3개월	215	230
4개월	285	605
5개월	345	370
6개월	399	429

필리핀 어학연수의 무한공감!!
E-Supporter에서 선착순 30분께 연수비용 파격적 할인!
▣ 비용내 포함 내역 (항공요금 및 교재비 별도)
– 비자 연장 및 ssp 발급, – 마닐라 공항 픽업,
– 청소 빨래 식사 등의 각종 편의 제공, – 각 레벨에 따른 수료증 발급

· 학원건물 · 휴게실 · 학원입구 · 도서관
상담문의 ☎ 062) 264-0882, 010-2255-0459